

숙박음식업계 고민… “일할 사람 없나요?”

9월 기준 빈일자리를 숙박·음식 6.3%, 도소매 2.8%로 높아
내국인관광객 회복으로 구인수요 늘었지만 취업기피 영향

제주지역의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빈일자리율이 숙박·음식점업 등 관광서비스업에서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외국인 인력을 많이 활용해오던 이들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애기다.

5일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올해 9월 기준 도내 빈일자리율은 2.1%로 2021년(1.1%)보다 높다. 전국 빈일자리율은 지난해 0.9%고, 올해 9월 기준 1.2%로 제주가 전국보다 높다. 빈일자리를(빈일자리수를 전체 근로자수와 빈일자리수의 합계로 나눈 백분율)은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비율을 의미한다. 빈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일할 사람을 뽑고 싶은데 찾는 이들이 적어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도내 빈일자리율은 산업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교육서비스업(0.1%)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0.1%), 금융·보험업(0.2%), 건설업(0.3%)은 낮았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6.3%로 가장 높았고, 도매·소매업(2.8%), 운수·창고업(2.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도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는 올해 9월 기준 2만8000명으로 작년 9월(2만4000명) 대비 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 회복세로 판매·접객 등 비숙련·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인 수요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과 청년층의 해당업종 기피 현상 등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내 올 1~9월 구인배율은 0.14

로 집계됐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18이었던 구인배율은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구인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0.10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도 회복되지 못해 여전히 0.10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구인인원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도 전국 구인배율(0.18)보다는 낮았다. 전국 구인배율은 2019년 0.15, 2020년 0.11, 2021년 0.13이었다.

구인배율은 구인인원을 구직자수로 나눈 산출한 것으로, 구인배율이 높을수록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수월하다는 의미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2월 5일~11일)

“숙련된 기술로 자동차정비서비스”



▶광령자동차공업사=1급 자동차공업사인 광령자동차공업사(대표 김창희·사진)가 오는 9일 창립 16주년을 맞이한다. 축적된 현장 경험과 숙련된 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전직원이 자격증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1급 정비공장으로서 수리와 유지보수를 비롯해 부품 교체·판금·전기 배선·차체 도장·정기점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희 대표는 “그동안 다져온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748-4572.

“가계·기업에 맞춤형 금융 지원”



▶제주은행 화북금융센터=오는 10일 개점 29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화북금융센터(센터장 겸 2지역본부장 정상현·사진)는 삼화출장소와 함께 지역가계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화지구 입주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소외계층 지원과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상현 센터장은 “고객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커뮤니티 뱅크의 위상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22-7242.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 서비스”



▶(주)아성기술단=오는 10일 창립 17주년을 맞는 (주)아성기술단(대표이사 현봉식·사진)은 전기통신소방 설계 및 감리,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설계·감리·시공·관리로 연결되는 ‘Easy & Good Service’를 제공하며 편리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조직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채용에도 주력하며 기술적 신뢰를 얻고 있다.

현봉식 대표이사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제공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는 강한 회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63-0072.

문미숙기자

“싱가포르 개별객 잡아라”
현지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싱가포르 코리애플라자(한국문화관광 홍보센터)에서 현지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올해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여행 중 가장 불편하다고 꼽는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관광 콘텐츠, 음식, 쇼핑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싱가포르 관광객의 성향에 맞춰 자전거, 골프, 트레킹 등 특수목적 여행상품과 올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선정된 체험여행 테마 콘텐츠도 소개됐다.

도와 공사는 현지 여행업체와 동호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특수목적 여행상품 개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미숙기자



제주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바탐 상공회의소가 5일 경제 무역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기업 아세안시장 개척 교두보

제주상의, 인도네시아 바탐상의와 경제교류 협약
상공인 상호 교류·아세안 신시장 공략 기회 될듯

제주와 인도네시아 바탐 경제단체가 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두 지역의 경제무역과 관광, 투자분야 등에서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상공회의소는 5일 인도네시아 바탐시(Batam) 산티카호텔 회의장에서 바탐상공회의소와 경제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 경제인 50여명이 참석한 체결된 협약은 앞으로 ▷상호경제 교류단 파견 ▷전시회 참가 협력 ▷경제·무역·관광·투자 정보 교류를 추진키로 해 아세안 핵심지역인 인도네시아에 지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협약식에서 “지난 9월 열린 제주포럼에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해 두 지역간 직항노선 개설과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제주의 경제현황과 투자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자다 라자국국 인도네시아 바탐상의 회장은 “인도네시아 바탐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호교류를 확대해 경제협력의 초석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 재주 방문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바탐은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에 속해 있는 섬으로 1971년 바탐산업진흥청(BIDA)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돼 싱가포르 정부의 협조로 개발이 시작되고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후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필립스,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문미숙기자

8일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2월 무료변리상담서비스를 오는 8일(오후 1~4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무료변리상담은 양지순 변리사가 진행하는데, 상담시간 조정

을 위해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상담도 지원한다.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들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32건을 지원했다. 특허가 11건, 상표 17건, 디자인 4건으로 상표 관련 수요가 많았다.

문미숙기자

서귀포시정소식

한중수교 30주년기념 서귀포시-중국교류도시 우호전

- 전시기간 : 2022. 12. 9(금) ~ 12. 15(목)
 - ※개막식 : 12. 9(금) 16:30
- 전시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 주최·주관 : 서귀포시·주제주중국총영사관
- 참 여 : 제주한라대학교 공자학원, 한중미술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 전시주제 : 함께 걸어 온 30년! 함께 걸어 갈 30년!
- 전시내용 : 서예·그림·특산품 전시
- 부대행사 : 중국문화놀이 한마당
 - 2022. 12. 10(토) ~ 12. 11(일) 10:00 ~ 16:00
- 행사내용 : 중국 팔찌 만들기, 전지(종이 오리기), 중국약상·변검 체험
 - ※참가자 선착순 200명 기념품 전달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064-760-3911, 3912)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09.1.1.~2022.8.31. 출생자)
 - 기간

구 분	위탁 사업기간	비 고
2회 접종 대상	2022. 9. 21(수)~2023. 4. 30(일)	생후 6개월~만9세 미만에서 처음 접종 또는 1회 접종한 경우
1회 접종 대상	2022. 10. 5(수)~2023. 4. 30(일)	만 9세 이상~만 13세

- 장소 : 관내 위탁의료기관 24개소
- 임신부 무료 예방접종
 - 대상 : 임신부(임신여부 증명서류 제시)
 - 기간 : 2022. 10. 5(수) ~ 2023. 4. 30(일)
 - 장소 : 관내 위탁의료기관 23개소
- 문의사항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7)

주간 농업농촌소식

대한민국 최고의 만감류를 찾습니다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감귤 재배농가의 자긍심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주감귤박람회'에서는 감귤품평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품목: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비가림 월동감귤

☐ 시상점수: 총 12점(품목별 금상·은상·동상 각 1점)

☐ 품목별 신청일자

품목	레드향	비가림 월동감귤	한라봉	천혜향
신청 일자	2022.12.12. ~ 12.16.	2022.12.12. ~ 12.16.	2023.1.16. ~ 1.20.	2023.2.13. ~ 2.17.

☐ 출품자격: 도내에서 만감류, 비가림 월동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농가경영체 등록자)

☐ 출품규격 및 물량

- 만감류 5kg: 품종당 16~20과, 277~250g/개
- 비가림 월동감류 5kg: S-M 사이즈
- 별도 신청서 양식에 기관(단체)장 추천을 득한 후 신청서를 출품하는 감귤상자에 부착 후 제출

☐ 접 수 처: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762-3091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감귤 신상품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모둠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땃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